

로이슈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남양주도시공사 정약용 펀그라운드, 미래세대 축제에 1,900명 참여… 어린이 작품 1,500점 선보여

기사입력:2026-10-19 17:34:41



[사진=남양주도시공사 제공]정약용 펀그라운드가 관내 어린이·청소년과 시민 1,9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6년 미래세대, 정약용 축제’가 열리고 있다.

[로이슈 차영환 기자] 남양주도시공사가 정약용의 실학 정신을 어린이·청소년의 문화 활동과 체험으로 연결하는 세대 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남양주도시공사 정약용 펀그라운드는 지난 16~17일 열린 ‘2026 미래세대, 정약용 축제’에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 등 1,900여 명이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축제는 연령대에 따라 프로그램을 나눠 이틀간 진행됐다. 첫날에는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정약용 문화제-다산으로 소풍가요’를 마련해 정약용을 주제로 한 어린이 작품 1,500점을 전시하고 만들기 체험을 운영했다. 모자와 키링, 가훈 캔버스 제작 등 10여 개 체험 부스에 더해 레일기차와 회전그네 등 15종의 놀이기구를 갖춘 ‘미니랜드’, 지역 청년농이 참여한 플리마켓도 방문객을 맞았다.

둘째 날 무대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이끄는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정약용 미래세대와 놀장(場)’에서는 인문 고전 책쓰기와 양말목 키링·화분 만들기, 행운 거북이 키링 제작 등 11개 체험 코너가 운영됐다.

종이비행기 멀리 날리기 대회와 청소년 합창, 가야금 산조 연주도 마련됐으며, 정약용의 생애를 해학적으로 풀어낸 마당극과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주관 프로그램 ‘조안의 가을, 다산의 책장을 열어라’가 축제에 더해졌다.

이번 행사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지식나눔터협동조합 등이 함께한 민·관·학 협력으로 추진됐다. 정약용의 실학 정신을 현대적인 교육·체험 활동으로 풀어내 어린이와 청소년의 역사·문화 이해를 돕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남양주도시공사는 청소년들이 역사적 가치를 체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협력망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청소년의 창의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활동을 지역 네트워크와 함께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정약용 펀그라운드스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창의적 활동 성과도 인정받았다. AI 기반 의견 수렴 시스템 도입 제안과 지도자 협력에 따른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등을 추진한 공로로, 성평등가족부가 후원하고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주최한 ‘2026년 우수 청소년 운영위원회’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프린트하기